

# 나를 사랑하는 교육이 필요하다

교육의향



노영필  
교육평론가

“저는 도저히 못하겠어요.”

학습 상담을 하던 A가 자신에게는 진단된 내용을 끌고 갈 힘이 없어 포기하겠다고 선언했다.

학생들과 상담할 때 종종 마주하는 상황이다. 그래도 매번 당황스럽다.

상담이 아이에게 구체적이지 않으면 뜬구름 잡는 이야기라 될 수 있기에 처음부터 자신의 성적표와 시험지를 가져오게 한다. 그리고 차근차근 자신의 문제점을 스스로 발견하게 한다. 단박에 문제점을 갈파하고 싶어도 바로 솔루션을 제시한다거나 한 번에 방법을 찾으려는 욕심으로 담뭍게 되면 과부하가 될 수 있어서다. 상담은 서로 노력해 가는 과정이지 한쪽의 능숙한 능력을 수월받는 것이 아니다.

상담에서 조력자가 돼 스스로 진단하고 스스로 해결책을 찾아내도록 유도하는 과정은 늘 만만치 않다. 전반적으로든 부분적으로든 자신의 문제점에 대한 통찰적 해안을 가졌다면 애초부터 학습 상담이 필요하지 않을 것이다. 공부 잘하는 비법을 얻으려고 찾아온 경우가 대부분이지만 상담의 최종 목표는 자신을 포기하지 않도록 하는 데 있다.

목표설정이 적절한지, 그에 따른 방법이 적절한지는 결국 학습의 주제인 자기 자신에 대한 제대로 된 이해에서 출발해야 하는데, 의외로 출발점이 돼야 할 자기 탐구부터 안 된다.

그 이유는 자기 자신을 대상화하는 기술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나아가 자기를 긍정적으로 바라보지 못한다. 학생들의 교육활동 중에 상당수가 어떠한 탐구할

동인데 정작 자아 탐구는 너무 막연하고 어려운 것일까? 사실 자기를 들여다볼 시간도, 기회도 없으니 배우는 즐거움을 전제로 하는 탐구활동, 그것도 자아 탐구와는 거리가 먼 현실이 지극히 당연한 지도 모른다.

방학 동안 과제를 냈다. 방학이 시작되기 전 정성스럽게 안내했다. 성적에 반영되지 않은 조건이지만 학기 중 부족했던 활동을 보충할 의도였다. 지난 학기 배운 내용 중에서 자신이 심화 탐구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주제를 정해서 독서하거나 토론 활동을 진행한 다음 정리해보는 주제 탐구형 과제였다. 하지만 10%의 학생도 제출하지 않았다. 성적과 상관없이 없었는지, 너무 어려운 숙제를 제시했던 것일까? 극소수에 그친 제출 결과는 원인을 찾는데 쉽지 않았다. 아이들의 무관심은 어디서 왔을까, 이 자포자기의 원인은 무엇일까. 어느 시기부터 의욕이 꺾이고, 동기부여를 잃게 됐을까.

학교는 탐구를 위한 공부를 하지 않고 있다고 진단하고, 대학 입시 시험 기술만 익히고 있다고 탓할 수 있을까? 아이들의 학습 의욕을 꺾는 근본적인 무기력은 어디서 왔을까? 반대로 버티고 있는 아이들은 어디서 만들어진 투지일까?

그냥 ‘열심히 하자’는 의미 없다. ‘~을 열심히 한다’거나 ‘~의 ~을 열심히 한다’로 구체적일 때 의미가 살아난다. 바꿔 말하면 나를 둘러싼 사소한 문제가 큰 변화의 축이 된다. 그런 나를 분석할 힘이 없으면 나는 ‘왜 공부하고 있는지’ 정리할 수 없다.

요즘 공부와 씨름하는 아이들은 여유가 없다. 입시성적을 겨냥하고 경쟁우위를 만들기 위해 자신의 문제 풀이 힘을 키우는 게 전부다. ‘왜 그렇게 되는 거지?’를 던지며, 내가 찾아보고 싶은 것, 내가 흥미로운 것을 탐구하는 재미, 알아가는 재미를 만나는 공부는 부재중이

다.

방법을 찾으려 다녀도 일확천금을 노리듯이 한 번에 공부 잘하는 능력을 만들고자 덤빈다. 상담은 계속돼야 한다고 말해도 다음에 찾아오지 않은 이유다. ভাল 욕심만 있지 자기 정리와 자기 응용이 안 되니 무엇을 어떻게 다시 상담해야 할지 오리무중에 빠지게 된다. 아이들과 학습 상담을 하면서 매번 느끼는 분위기다.

그래서 공부와 관련된 컨설팅보다 먼저 자신의 생활에 관심을 어느 정도 두고 있는지 묻는다.

처음에는 무슨 뜻인지 어리둥절해한다. 수업이 시작되기 전 수업 준비를 하는지, 등교하면서 오늘 수업은 어떤 과목인지, 수업이 끝나고도 수업 내용을 되짚어 보는지 다시 묻는다. 사소하기 짝이 없을 수 있는데 그렇게 말하면 당황해하는 학생이 더 많다. 그런 태도가 자신을 향한 관심이고 사랑이라고 덧붙이면 비로소 고개를 끄덕인다.

기실 우리 교육은 자신을 확대하게 만드는 교육 풍토가 확산돼 있다. 성적 결과를 두고 못했더라도 칭찬을 먼저 하는 풍토가 아니라 자신을 깎아내리고 좌절하게 만든다. ‘괜찮아’, ‘토닥이며 고생했다고 격려하는 게 아니라 ‘그것밖에 못 했냐’는 비난부터 한다. 경쟁의 비극적 논리다. 왜, 아이 스스로 자신의 일생을 꺼안고 가도록 인도하지 않고 남의 잣대인 어른들의 논리에 묶여 살게 하는가!

지금까지 교육은 나를 고통스럽게 하대해야 성과를 만든다는 논리를 권장했다. 그래서 지진 경보가 울려도 피난을 권하는 게 아니라 고3은 참아야 한다고 권하는 헤프닝을 만들었던 것이다. 왜 즐겁게 놀면서 공부할 수 없을까? 그 이유는 ‘나를 사랑하도록 왜라는 질문을 던지는 철학적인 교육을 하지 않기 때문’이다.

## 社說

### 혁신 의지 분명한 지역대학 ‘글로벌30’

#### 전남대 등 4곳 오늘부터 심사

글로벌대학30 마지막 단계인 본지정 현장 대면평가 심사가 19일부터 열린다. 교육부가 비수도권 대학 30곳을 대상으로 5년 동안 1000억 원을 지원할 글로벌대학30의 가장 중요한 평가 기준은 과감한 혁신이다. 마지막까지 방심하지 않는 대처로 지역대학이 본지정에 선정되고 지역의 발전으로 이어지길 기대한다.

광주와 전남에서 이번에 심사를 받는 대학은 전남대와 대구보건대·대전보건대와 초광역으로 연합한 광주보건대, 목포대, 동신대·초당대·목포과학대 연합 등 모두 4곳이다. 지난해 본지정에서 탈락한 전남대는 ‘지역과 대학의 한계를 극복하는 대학’을 전략으로 19일 심사를 받는다. 광주보건대 연합의 목표도 ‘대한민국 대표 보건전문대학’이다. 목포대와 동신대·초당대·목포과학대도 각각 친환경 무탄소 선박과 그린 해양에너지 산업, 사립 일반대와 전문대 간 연합으로 ‘지역 공공형 사립 연합대학’ 모델을 구축하겠다는 혁신안으로 20일 심사가 예정

돼 있다.

정부가 글로벌대학30을 추진하는 배경은 지식과 기술의 변화 주기가 빨라지고 인구 감소가 지역 위기로 이어지는 상황에서, 대학의 담대한 혁신을 추진하기 위해서다. 글로벌 혁신전략과 대학별 특성을 살린 고유의 비전을 꼼꼼하게 살펴야 하는 것도 이 때문이다. 대학의 벽을 허물고 지역 사회와의 파트너십을 통해 글로벌 수준의 지역과 대학의 동반성장을 이끌겠다는 의지도 보여줘야 한다. 지방자치단체와 지역 산업체의 동참도 필요하다. 지역 거점대학 육성의 핵심 프로젝트인 글로벌대학에 광주·전남지역 4개 대학 모두가 최종 선정되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아야 한다.

교육부는 ‘향후 10~15년을 대학 혁신의 마지막 골든타임’으로 보고 있다. 교육개혁에 왕도는 없지만 글로벌대학은 변화의 시작이라는 점에서 중요하다. 전남대와 광주보건대, 목포대와 동신대·초당대·목포과학대 연합이 내세운 혁신과 비전 또한 적극적인 변화와 도전을 추구한다는 점에서 최종 지정 기대감이 높다. 마지막까지 지역 사회의 관심과 지원이 필요하다.

### 국경일 ‘태극기 게양’ 확대 안타깝다

#### 신축 아파트 국기 깃이 사라져

태극기 게양을 통해 순국선열을 기리는 문화가 점차 사라져가는 모양새다. 제79주년 광복절을 기념해 게양된 태극기가 거의 눈에 띄지 않아서다. 광복절을 맞은 지난 15일 광주 동구의 한 아파트. 국경일인 이날 대부분의 세대에는 태극기가 내걸리지 않았다. 20층이 훌쩍 넘어가는 아파트 입에도 태극기는 고작 한 개만 걸려 있었다. 인근 다른 아파트의 상황도 별반 다르지 않았다. 일반 가정집에서도 태극기를 쉽게 볼 수 있었던 예전의 국경일 풍경은 찾아보기 힘든 모습이었다.

주거형태가 아파트 등으로 바뀌면서 더욱 심화되고 있다. 난간이 없고 통창으로 된 신축 아파트가 점차 늘면서 국경일에 태극기를 게양하지 않는 세대가 많아졌다. 태극기를 게양할 곳이 초차 사라지고 있다.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난간이 있는 경우 세대마다 국기봉을 깎을 수 있는 장치를 설치해야 한다. 하지만 지난 2021년 법 개정으로 각 동 지상 출입

구에 설치하는 것으로 대체할 수 있다. 신축 아파트나 오피스텔의 경우 베란다에 국기 깃이가 별도로 마련되지 않아 태극기를 걸 마땅한 곳이 없다고 한다.

태극기를 거는 의무감도 사라지고 있다. 한국리서치가 지난 2022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한 ‘국기 게양 행태 및 태극기 이미지의 조사’에서 ‘국경일 및 주요 기념일에 태극기를 건다’고 답한 응답자가 전체 응답자의 47%에 그쳤다. 요즘 태극기 확대는 매우 걱정스럽다. 국경일에 행정기관이 거리에 내건 태극기가 전부라는 현실이 씁쓸하다.

태극기 게양은 순국선열을 기리고 숭고한 뜻을 받들자는 문화이며, 국민적 역량을 하나로 결집하고, 애국심을 고취시키는 행위이기도 하다. 태극기는 우리의 역사 속에 민족과 함께 숨쉬어 온 정신적 상징이다. 국경일의 의미를 되새길 수 있도록 태극기 게양 문화 확산이 시급해 보인다. 지자체는 국경일이 다가오면 태극기 판매와 게양 홍보에 적극 나서야 할 것이다. 국경일마다 태극기가 펼쳐질 수 있도록 국민적 의식 전환도 시급하다.

全南日報 독자 의견을 환영합니다 webmaster@jnilbo.com (062)510-0321

#### 서석대



답다. 더위도 너무 답다. 가을 기운에 접어든다는 입추가 지난 지 십여일이고, 처서가 널모레인데 폭염의 기세는 당최 사그라들 줄 모른다.

입맛이라곤 전혀 없지만 지인의 권유에 냉면을 먹고 들어오는 길. 등골을 서늘하게 하고 뒷머리 땀뻘치는 기계 바람이 싫어 잠시 걸을까 했는데, 웬걸 몇 걸음도 채 가지 못해 온몸에 다시 땀이 스민다. 땀벌에 마실도는 것은 아무래도 무리다. 별 수 없다. 다시 사무실 에어컨 아래로 피신할 수밖에.

겨우 한숨 돌리려니 흐르는 물에 발을 담그는 탁족이나, 삼삼한 그늘자리에서 부채를 부치는 낡은 양산이었던 우리 조상들은 이 무지막지한 찜통 더위를 어떻게 견뎠을까라는 생각이 들었다.

여름날 답기는 옛날에도 마찬가지였던 것 같다. 고려 중기 대문호 이규보(李奎報)의 시 ‘고열(高熱)’에 염천의 고통이 생생하게 기록돼 있다.

‘혹독한 더위와 근심의 불덩이가 가슴 속 가운데서 서로 줄이네/ 온몸에 빨갛게 따피 나기에 바람 쐬며 마루에 곤해 누웠지/ 바람이 불어와도 화염과 같아 부채로 불기운을 부쳐대는 듯/ 목말라 물 한 잔을 마시려 하니 물도 뜨겁기가 마치 탕국물 같네...’ 얼마나 더웠으면 이렇게 표현했

을까. 조상들의 여름나기 방법은 신분별로 차이가 있었다. 체면을 중시했던 양반들은 아무리 답다한들 길동이처럼 훌훌 옷을 벗어던지거나 물속에 뛰어들지 못했다. 돛자리를 깎아 사랑방 옆 마루에서 죽부인을 끼고, 삼베 옷 속에 등거리와 등토시를 걸쳐 바람을 통하게 해 견뎠다.

선비들의 또 다른 피서법은 독서삼매에 빠지는 것이었다. 의관을 정제하고 사랑방에 앉아 선현들의 글을 읽으면서 더위를 잊는 것이다. 조선 숙종 때의 문신인 윤증(尹拯)은 ‘더위(暑)라는 시에서 ‘구름은 아득히 멀리 있고 나뭇가지에 바람 한 점 없는 날/ 누가 이 더위를 벗어날 수 있을까/ 더위 식힐 음식도, 피서 도구도 없으니/ 조용히 책을 읽는 게 제일이구나.’라고 독서를 최고의 피서로 쳤다.

이에 반해 서민들의 여름나기는 ‘더위 쫓기’였다. 계곡을 찾아 전령을 즐기거나 시원한 폭포수를 맞기도 했으며, 때로는 바다를 찾아 모래찜질을 하며 여름을 냈다. 유례없는 불여름이 제 아무리 맹위를 떨친다고 하나 입추가 지나지 않았는가. 이제 다시 십여일만 견디면 조석으로 소슬 바람 불어오고 귀뚜라미 우는 소리 들릴 터이다.

최도철 미디어국장

Table with 4 columns: Section, Contact Info, Staff, and Address. Includes details for JNILBO subscription and contact information.

독자 의견을 환영합니다 (e-메일) webmaster@jnilbo.com